

# 러일전쟁기 '제2전장'

## 한반도의 지상전

— 정주전투와 압록강전투를 중심으로 —

沈 憲 用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2. 러일전쟁 발발과 양국 군대의 한반도 진격
3. '제2전장' 한반도에서의 지상전
4. 나 오 며

### 1. 들어가며

지금으로부터 백년전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된 러일전쟁은 1904년 1월 26일(신력 2월 8일) 오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인천 제물포항에서 일본군이 러시아 군함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날 밤 여순항에서도 일본군이 러시아 해군기지를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은 한반도와 만주를 전장으

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와의 개전을 준비해 온 일본이 여순과 인천의 러시아 해군을 기습 공격하였던 것은 황해 제해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일본이 인천항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한 또 다른 목적은 한반도 서해안에 위치한 항구를 통하여 군대를 상륙시키고 대한제국의 수도 서울을 장악하여 한반도를 자국의 군사기지로 만드는 데 있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서울 장악후 평양을 거쳐 압록강으로 북진하여 만주의 러시아군을 압박하려는 군사 전략에 충실했던 것이다. 한반도는 만주에 이어 러일전쟁의 '제2전장'이자 일본이 대 러시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에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두었다. 오히려 러시아에게 더욱 중요했던 지역은 바로 만주였다. 여순항을 조차하고 동청철도(東淸鐵道)를 부설하여 만주지역에서의 세력을 키워 나가던 러시아로서는 만주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비록 일본이 영일동맹을 배경으로 강경하고 줄기차게 러시아 군대의 만주철수를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3단계 철수 약속을 해 주되 시간을 끄는 지연책을 구사하였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고 러일협상 중에 꾸준히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우월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만주에서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데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는 없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과 같은 보급로 확충사업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현상유지 내지 세력권 분할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즉 러일전쟁 발발 시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는 비록 첨예하게 대립되기는 하였으나 전략적 접근태도에 있어서는 상호 차이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곧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다.

러일전쟁에서 한반도 전장이 지닌 의미는 정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아오지 못하였다. 한반도는 만주에 이어 치열하게 전투가 전개된 러·일 양국의 주요한 전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러일전쟁이 한반도나 한반도 민족과는 무관하게 전개된 외국 열강간의 전쟁이었다고 치부하며 나아가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반도가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치욕의 역사로 외면해 왔다. 그러나 러일전쟁은 대한제국의 국가적 운명을 좌우한 정치세력과 열강들의 대리전이었다. 또한 러일전쟁은 바로 한반도에서, 즉 해상에서는 인천 앞바다에서의 포성과, 그리고 육상에서는 평양 시내의 총격전으로 시작되었고 정주에서의 교전과 압록강에서의 전투로 이어졌다. 이럼으로써 일본은 만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결코 러일전쟁은 남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승전국 일본과 패전국 러시아의 연구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우리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투사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sup>1)</sup> 전쟁의 성패에 따라 대한제국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역사적 결과를 보면서 바로 전장을 제공했던 한반도 영토 내에서의 전투사를 조망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러·일 양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벌인 군사활동, 특히 지상에서 전개된 전투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외교사 I』(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3)와 『한로관계 100년사』(한국사연구협의회, 1996)는 러일전쟁을 다룬 선구적인 연구성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곳에 수록된 연구 성과에는 영미권과 일본측 자료가 풍부히 반영되었지만, 러시아측 자료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한국외교사연구』(김용구, 하영선 편, 1996)와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문서요약집』(한국국제교류재단, 2002)이 발간되어 1990년대 이후 공개되거나 수집된 러시아측 자료가 상당부분 소개되어 러일전쟁 연구의 길라잡이로서 일정한 활력을 제공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료에 대한 소개 내지 해제작업에 충실하고 있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일전쟁사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갈등을 살펴보고 있는 최문형의 『제국주의 시대 열강과 한국』(서울:민음사, 1990)과 강성학의 『시베리아 철도와 사무라이: 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전략』(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곳에서도 여전히 한반도에서 전개된 지상 및 해상 전투사에 대한 연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 2. 러일전쟁 발발과 양국 군대의 한반도 진격<sup>2)</sup>

### (1) 러일전쟁의 발발

러일전쟁은 1904년 1월 26일과 27일(2. 8~9) 사이에 일본함대가 인천 앞바다의 러시아 함대와 만주 여순항의 러시아 해군기지를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발발하였다. 한반도 서해안, 수도 서울의 관문인 제물포항에서 최초의 포성이 일어남으로써 한반도 역시 예외없이 러일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었다.<sup>3)</sup> 한반도는 러일전쟁의 '제2의 전장(второстепенный театр вой ны)'으로 형성되었다. 한반도는 전시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전장의 참화를 겪어야 했다. 대한제국은 강압적인 방식에 의해 '공식적인' 대일 협력관계(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지만 승전국으로서 지위는 고사하고 일본의 전횡에 의해 완전히 무력해져 갔다.

1903년 1월 영일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세력을 얻은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상에 강경자세로 일관하였다. 일본 군부는 협상을 전개하면서 전쟁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마침내 1904년 1월 23일(2. 5) 일본군 함대 도고(Того) 사령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제물포항 근처로 갈 것을 명령받았다. 그 다음날 함대를 소집한 도고 사령관은 사세보항을 떠나 황해로 지나 여순으로 출진하였으며 도중에 우리우(Уриу)를 사령관으로 한 분견함대를 제물포로 파견하였다.<sup>4)</sup> 그러나 러시아를 위시한 외국 군함들은

2) 제2장은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제24회 학술연구발표회("러일전쟁과 동아시아", 2003년 11월 21일)에서 발표한 필자의 「러일전쟁기 러시아의 한반도 내 군사활동」을 저본으로 하였다.

3) 「제물포 해전의 영웅들」, РГВИА(러시아 국립 군역사문서보관소) Ф. ВУА. Оп. 16. Д. 9194, Л. 1.(1904).; 박종효, op. cit., pp. 630-631.

4)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летопись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 ны (М.: Рей ттар, 2001), с. 53-58;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С-Петербург, 1904), с. 20-21.

일본 해군이 출진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의 긴박한 움직임을 뒤늦게 감지한 주한 러시아 공사 빠블로프(Павлов)는 여순의 극동 총독과 본국 정부에 일본군의 동태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전신선이 단절되어 부득이하게 포함 꼬레이츠 <Кореец>호를 급파하게 되었다. 그런데 1월 26일(2. 8) 오후 4시 35분경 <꼬레이츠>호는 정찰 겸 기밀을 전달하려 나섰다. 일본함대와 마주치게 된다. 당시 일본함대는 아자마 <Азама>호를 위시한 장갑순양함 6대 그리고 포함 8대로 구성되어 러시아 전력의 4배가 넘었다. 일본 <아자마>호 함장 우리우는 일본군을 인천에 상륙시키기 위해 접근하던 중 러시아 함대를 만난 것이다. 일본 함대는 러시아 포함 <꼬레이츠>호를 보고 3발의 수뢰를 발사하였으나 정확히 타격되지는 않았다.<sup>5)</sup> 이로써 러일전쟁 최초의 포문이 인천 앞바다 월미도 해상에서 열리게 되었다.

일본 함대의 출현에 놀라 귀환한 포함 <꼬레이츠>호 선장 벨랴에프(Беляев)는 장갑 순양함 바라크 <Варяг>호에 이 사실을 알렸다. <바라크>호 선장 루드노프(Руднев)는 일본 함대가 3,000여명의 군병력과 군수물자를 상륙시켜 수도 서울로 진격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일본의 적대적인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전시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제물포 내항에 정박한 채 사태를 지켜보았다. 러시아 군함 <바라크>호는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위험지역 제물포를 벗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제물포항이 중립지역인 점 그리고 동료 군함인 <꼬레이츠>호나 기타 러시아 상선을 보호할 책무가 있어 그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머무르기로 했던 것이다.

그 다음날인 1월 27일(2. 9) 아침 일본 함대사령관 우리우는 “만일 두 대의 러시아 군함이 정오까지 떠나지 않는다면 항구 내에서 공격하겠다”<sup>6)</sup>고 선언하였다. 외국 함대들 역시 일본으로부터 오후 4시 이후에 항구를 떠나 줄 것을 통보받았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러시아의 입

5)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летопись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там же, с. 88.

6) Там же.

장에 동조하여 일본에 항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의 결전의지에 환호를 보냈다.<sup>7)</sup>

러시아에 비해 4배 이상의 전력을 갖추고 있던 일본 함대는 11시 50분, 자신들이 정해 놓은 러시아 함대의 퇴각 시각인 10시 직전에 장갑순양함 <아자마>호를 선두로 러시아 장갑순양함 <바라크>호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바라크>호 역시 용사하면서 대항하였지만 워낙 불균등한 전투가 전개되어 결과는 자명한 것이었다. 러시아 함대는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항구로 후퇴하였다.<sup>8)</sup>

러시아 <바라크>호는 1명의 장교와 33명의 수병이 사망하였으며, 19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루드노프 함장도 머리에 부상을 당하며 선전하다가 결국은 후퇴하였다. <꼬레이츠>호가 자폭함으로써 적군 일본에게 포획되는 것을 막았으며 상선 <승가리>호 역시 불을 질러 운명을 같이 하였다. 상당부분 파괴된 <바라크>호는 적군 일본에게 포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함장의 지시에 따라 급배수용 판을 열어 스스로 수장되었다.

이처럼 러일전쟁 최초의 전투는 인천 월미도 앞바다 해상에서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성공적인 여순항 기습 및 봉쇄작전과 더불어 황해 해상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안정적인 군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로 군대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을 전쟁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의 승리에 따라 세계는 극동지역 세력구도가 뒤흔들리는 충격을 맞보지 않을 수 없었다.

7) РГА ВМФ(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보관소). Ф. 417, Оп. 1, Д. 3095.

8) 자세한 전투 장면은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летопись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там же, с. 83-93.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번역문은 심현용 편역, 『한·러 군사관계사료집 I. 러일전쟁과 한반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 293-294.

## (2) 러·일 양국 군대의 한반도 진격과 대처

### 1) 일본군의 한반도 배치와 군사작전

일본의 대러 작전계획은 이미 러·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부를 중심으로한 강경세력의 복안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취하고자한 일본의 최고 목표는 대한제국에 대한 배타적 우월권, 그리고 더 나아가 보호국 설정에 있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동의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일본 내각의 입장이었다. 심지어 일본 수상 가츠라는 러시아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기존의 수세적 작전계획을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하도록 준비시켰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제1차로 1903년 말까지 압록강 이남지역을 점령하며, 제2차로 요양을 목표로 남만주에서의 공세작전을 전개한다<sup>9)</sup>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대러 전쟁을 준비하였다. 일본 육군의 작전계획은 3개 사단으로 구성된 제1군이 우선적으로 한반도 대한제국으로 파견되어 수도 서울을 장악한 후 압록강 방향으로 진격하고, 마찬가지로 3개 사단으로 구성된 제2군이 요동반도의 여순항을 장악한 후 만주로 진격하여 마침내 양군이 요양(遼陽)에서 합류한다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인천해전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병력을 한반도로 상륙시키기 시작하였다.<sup>10)</sup> 1904년 1월 19일경에 이르러 일본군은 신속한 개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러시아 육군부대가 극동으로 수송되고 함대가 증파되는

9) 이쿠타 마코토(生田 恂), 김행복 역, 『일본육군사』(서울: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4), pp. 86~87.

10) 1903년 12월 12일 극동총독 산하 임시 야전참모장이 일본 주재 군사무관에게 보낸 보고 공문에 의하면 11월에 정복을 착용한 일본군이 제물포에 상륙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제물포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보부르>호 선장 부브노프(Бубнов) 해군 중령은 약 400명의 일본군이 밤을 이용하여 일반 선박 편으로 제물포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의 대한제국 극비 상륙 보고서”, РГВИА Ф. ВУА, Оп. 1. Д. 133. Л. 66~69(1903); 박종효, op. cit., p. 607.

등 극동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전력이 증강되어 오자 일본 육군 참모총장 오오야마 이와오(大山巖)는 적어도 유리하거나 팽팽한 극동지역에서 러·일 간의 군사력 균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sup>11)</sup> 마침내 1904년 1월 22일 일본 내각이 개전 결정을 내리자 일본 육군은 기고시 야스즈나(木越安綱) 소장 지휘 하에 보병 4개 대대의 주력을 한반도의 조선임시파견대(朝鮮臨時派遣隊)로 출동시켰다. 즉 공식적인 개전 이전부터 일본군은 한반도에 대대적인 병력을 파견시켜 전쟁에 대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은 인천해전 이후의 일이다. 더욱이 1월 28일(2. 10) 양국이 상호 선전포고를 공식화하자 일본의 대한제국으로의 병력 수송은 주요 항만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은 인천항 이외에도 해빙(解氷)된 진남포를 통하여 일본군 200명 규모의 근위사단 예비병력을 일차로 상륙시켰으며 곧이어 제2보병사단을 상륙시켰다. 그리고 원산방면에서는 5,000명의 보병을 상륙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일본군 제1군은 한반도 남부의 진해, 서부의 인천과 진남포 그리고 동부의 원산을 통하여 각각 육·해군을 진주시켰고 평양으로 집결한 후 압록강 방면으로 진격해 나갔다. 그 결과 2월 8일(2. 21) 일본군은 서울에 2만명, 평양에 1만명, 원산에 5,000명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 2만명 등이 배치되어<sup>12)</sup>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곧이어 추가로 병력을 파견하여 총 약 10만명의 병력을 압록강과 인천 사이에 배치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일본군 북진의 선봉은 구로끼(Куроки)를 사령관으로 하는 제1군 산하 제12사단이였다. 이 부대는 인천해전 이전부터 신속하게 한반도로 상륙하여 3월 2일(2. 15)에는 벌써 평양에 집결하였고 3월 8일(2. 21)에는 사령부를

11) 이쿠타 마코토(生田 恂), op. cit., p. 88.

12) Пак Чен Хе,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и Корея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7), с. 181.

설치하는 기민함을 보여 주었다. 그 후 일본군은 매우 조심스럽게 북쪽으로 전진해 가면서 3월 15일 정주에서 미센포 기병대와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군은 3월 22일(4. 4)경에 압록강 하구, 의주나 용암포까지 이르렀고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압록강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일전에 대비하였다.

## 2) 러시아군의 전투 대비 현황과 전략

전장은 지역에 따라 크게 해상전장과 지상전장으로 나눌 수 있다. 러일전쟁 당시 지상전장은 한반도 전장(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войны)과 북만주와 남만으로 구분되는 만주전장(Манчжурский театр войны)이었다. 이 중에서 러시아는 남만주 전장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sup>13)</sup> 이 곳은 러시아의 조차지 요동반도가 위치해 있고 러시아 극동총독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러시아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다. 이 곳을 만일 일본이 장악한다면 러시아는 동청철도의 남만주 지선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러시아 중앙이나 블라디보스톡과의 육·해상 연결선이 단절되어 매우 큰 전략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반도 지역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 곳은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제1의 전진기지였다.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보아도 일본군이 한반도를 점령하여 그 남부해안에 위치한 부동항(마산, 진해)을 차지한다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여순항 연결선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긴요한 곳이 아닐 수 없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제해권 장악은 곧 발생 가능한 러일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건 중의 하

13) Н. А. Левицкий, П. Д. Бьков и С. Переслеги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М.: ИЗОНРАФУС, 2003), с. 65. 1938년에 발간되었다가 최근 2003년 다시 발간된 이 책은 러일전쟁에 관한 그리 많지 않은, 소비에트 학계도 인정한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브이코프의 해상전과 빠리슬레킨의 쓰시마해전 평가를 추가로 수록하여 명실공히 러일전쟁의 지상, 해상전을 망라하는 종합 연구성과물로 다시 발간된 것이다.

나였다.<sup>14)</sup>

러시아가 한반도를 남만주보다도 더 부차적으로 판단한 정황은 만주군에 내려진 임무나 전력에 따른 형편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즉 1904년 2월 7일(2. 20) 러시아 극동군 총사령관 알렉시예프(Е. И. Алексеев) 장군이 만주군 사령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리네비치(Н. П. Линевиц)에게 지시한 만주군의 임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주군은 일본군이 총력을 기울여 여순항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그리고 일본군이 압록강을 건너 동청철도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을 지연시켜 서시베리아와 유럽러시아에서 다가오고 있는 우리(러시아의) 예비전력이 집결하는 시간을 버는 데 있다. 그와 더불어 만주군은 랴오헤(Ляохэ, 遼河)강과 압록강 하구 그리고 그 인근 강변에 일본군이 상륙하는 것을 방해할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sup>15)</sup>라고 설명한 점에서 알 수 있다. 그와 더불어 극동군 총사령관은 “적군이 여순항을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요동반도에 상륙시킨다면, 한반도 방면에 방호벽을 설치한 후 후방상태나 적군의 여순작전의 동향을 보아 활동하라”<sup>16)</sup>는 다소 소극적인 대한반도 지침을 내렸다. 즉 러시아 극동군 총사령부의 대일본군 대응 전략은 여순, 만주 전장에 대한 방어를 우선으로 하여 한반도 방면에서의 방어는 일본군을 분산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러시아가 한반도 전장에 대한 전략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당시 만주군의 전력이 형편없이 미약했던 데 기인하기도 한다. 러일전쟁 발발 초기 만주군의 병력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만주군은 단지 27개의 대대와 22개의 까자크 기병부대 그리고 44문의 대포가 전부였다. 그 외의 다른 병력들은 대개 연해주나 아무르주 그리고 자바이칼 지역에 산재

14) Там же, с. 68-69.

15) “Дей ствия сухопутных вой ск”,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 в, М., 1941. с. 22; РГВИА(러시아 군역사 문서보관소) Ф. ВУА. Д. 27239. Л. 129-130.

16) Там же.

해 있는 실정이었다.<sup>17)</sup> 러시아 부대가 어느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부대의 전술운용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는 넓은 지역에 대한 방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해 결국 일본군에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18)</sup>

러시아의 주력부대가 만주에 집결한 것은 한달 반이 지난 3월 중순이었다. 이 시점은 쿠로빠트킨(A. H. Куропаткин)이 만주육해연합군, 이른바 만주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해 온 3월 15일(3. 28)과 시점이 일치한다. 4월이 되어서 만주군은 12만 3,000명 이상의 병사와 322문 이상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만주군의 대략적인 배치현황을 보면, 블라디보스톡과 연아무르 지역에 2만 4,000명 이상, 요양-봉천선 방면에 2만 8,000명 이상(내지 3만 명)과 대포 60문 그리고 관동주 지역에 약 2만 8,000명 이상이었다. 이 중 요양-봉천선 방면의 러시아군이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방향에 전진 배치되어 일본군 주력이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하였다.<sup>19)</sup> 문제는 러시아의 방어 전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이는 일본군의 한반도나 요동반도 상륙 기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20)</sup>

쿠로빠트킨은 만주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부대를 두 개의 전진부대와 하나의 후진 예비부대로 편성하였다. 두 개의 전진부대 중 하나인 남부 전진부대(южный авангард)(사령관 쉬따켈베르크(Г. К. Штакельберг)) 18개의 보병대대와 6개의 기병대대 그리고 55개의 포대를 갖춘 2만 2,000명의

17) Н. А. Левицкий,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гг. 3-е издание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ркомата обороны СССР, 1938), с. 65, 84. 당시 제정러시아 병력은 정규군 11만, 예비군 35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러일전쟁에 즈음하여 러시아 정부는 극동방면으로 9만 8,000천명의 병력을 파견하면서도 후방을 방어하기 위한 예비병력으로 경비병 2만 4,000명을 배치하였으며 272문의 대포를 준비하고 있었다.

18) Там же, с. 85.

19) Там же.

20) В. А. Золотарев, О. В. Саксонов, С. А. Тюшкевич, Военн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 Кучково поле, 2001), с. 447-448.

부대가 요동반도 해안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진부대인 동부전진부대(восточный авангард)(사령관 까쉬말린스키(Н. К. Капшгалинский))는 보병대대 8개, 포대 38개 등으로 진용을 갖춘 1만 9,000 내지 2만명 규모의 부대로서 한반도 국경지대에 주로 배치되었다.

동부전진부대는 전초부대로서 동부지대(восточный отряд)를 구성(사령관 자수리치(М. И. Засулич, 3월 30일 임명))하여 일본군의 전진에 대비하였다. 압록강에 전진 배치된 동부지대는 아이훈, 자바이칼, 치타, 베르호네-우진스크 그리고 우수리스크 까자크 기병연대 등으로 구성되어 제3, 제6 동부시베리아 보병사단으로 편성되었다.<sup>21)</sup> 자수리치 동부지대에게 부여된 임무는 첫째, 현지 조건을 이용하여 압록강을 건너오는 적군을 곤란에 빠트릴 것이며, 둘째, 러시아 부대와 맞부딪칠 일본군의 전력, 구성 그리고 기동방향을 알아내는 것<sup>22)</sup>이었다. 자수리치 동부지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월등히 우월한 적을 맞아 결정적인 전투를 직접 벌이지 말고 (러시아) 본대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패배를 자초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일본군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압록강 근처에 배치된 또 다른 부대는, 동부전진부대에 소속되어 있다가 동부지대로 소속이 바뀐, 선견기병지대(先遣騎兵支隊, передовой конный отряд, 사령관 미셴코(П. И. Мищенко))였다. 이 부대의 임무는 일본 전력을 탐색하는 데 있었다. 1904년 2월 9일(22) 미셴코 선견기병지대는 당시 임시 만주군 총사령관 리네비치(Линевич)로부터 “지체없이 치타연대와 같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주둔한 후 아이훈 연대나 포병대와 합류하여 평양 방면으로 나가는 길을 정찰하라. 만일 임무 수행과정에서 일본 정찰부대를

21) 이 중에서 자바이칼 까자크 부대의 극동지역에서의 활동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В. И. Василевский, Забайкальское казачье войско (М.: Русское слово, 2000), с. 24-25.

22) Пак Чен-Хе, там же, с. 190.

만나면 괴멸시켜도 좋다. …… 그러나 이 경찰부대는 경찰 수행과정 중 일본군이 매우 강대하여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압록강까지 건너 되돌아와야 한다”<sup>23)</sup>라는 임무를 지시받았다.

일본군이 제물포에 처음 상륙하여 압록강 방향으로 집결하고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데 걸린 기간은 한 달 보름 정도였다. 러시아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일본의 진격을 방해하기 위한 모종의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미셴꼬 기병부대가 정주에서 전투를 벌여 일본군에게 러시아군의 존재를 확인시키려 시도한 것 밖에는 별로 없었다. 또한 러시아군은 일본과의 전쟁을 예상하여 일본군의 규모나 동향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해 놓은 것이 별로 없었다. 다만 미셴꼬 기병부대의 초기 경찰활동을 통해서야 비로소 일본군의 부대규모나 부대 배치, 집결 및 이동상황 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sup>24)</sup> 그러나 과연 일본 사령부가 한반도 내에서 아니면 잉꼬우나 중국 그 어느 곳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전개할지 알고 있지 못했다. 러시아로서 가장 덜 위험한 시나리오는 압록강과 요양 사이의 산악지대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이는 것이었지, 그와 달리 해안가나 잉꼬우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보았다.

러시아군이 일본과의 전쟁을 지역 차원의 소규모 전쟁으로 파악한 반면에 일본군은 대러 전쟁을 위해 군대를 한반도로 이동시키고 배치하는 문제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적군의 배치 여부와 그 규모 그리고 전략적 의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정보에도 밝았다. 이들은 한반도를 중요한 전장으로 간주하고 대비하였던 것이다. 일본군은 한반도 육상에서 벌어진 전투에 전력을 다했으며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을 만주로 격퇴시킴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협상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23) РГВИА(러시아 군역사 문서보관소) Ф. ВУА. Д. 12096. Л. 65-66.

24) М. Шилов, “Бой на р. Ялу”, военный вестник 5, 1939, Воениздат, с. 6.

### 3. ‘제2전장’ 한반도에서의 지상전

#### (1) 러시아 정찰부대의 한반도 정찰과 정주전투

러시아군 내에서는 그나마 동부지대 산하부대인 선견기병지대(先遣騎兵支隊)의 활동이 과감하고 용감하게 전개되었다. 미셴꼬가 지휘하는 이 부대의 임무는 일본군 동향에 대한 정찰활동에 있었으나 일본측 기병대를 분쇄하는데 있어서도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1904년 2월 2일(2. 15) 치타연대의 까자크 기병부대가 도착하고 2월 5일(2. 18)에는 추가적으로 2개의 아이훈 까자크 기병부대가 합류하여 미셴꼬 기병지대는 상당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여순항 러시아 기지가 두 번째로 공격을 받은 이후 한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첩보원의 보고도 잇달았다. 일본군의 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이미 평양에 진출해 있으며 이 곳을 전초기지로 하여 안주까지 출현했다는 보고였다. 러시아 미셴꼬 부대는 서둘러 의주를 떠나 안주를 지나 평양까지 진출하게 된다. 러시아 선견기병지대의 정찰 경로는 초기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이들이 지나온 길은 일본측이 평양에서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노선이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은 북으로는 만주로 이어지지만, 동으로는 안주를 지나 원산으로 그리고 남으로는 서울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2월 11일(2. 24) 의주를 떠나 고된 산악행군을 거쳐 안주에 도착한 미셴꼬 선견기병지대는 이 곳을 거점으로 삼았다. 이 부대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더 이상 진군하지 않고 평양과 영변에 정찰병을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당시 평양에 일본군이 단지 1개 중대 정도의 병력만이 입성해 있었다는 정보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일본군이 8,000명

이상 주둔해 있다는 첩보를 현지 주민들로부터 듣게 된다. 게다가 러시아 정찰병 2명이 직접 7명의 일본군과 총격전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자<sup>25)</sup>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군이 평양에 출현했다는 소식은 평양 시내의 일본군에게도 확산되어 상당한 동요를 일으켰다. 비록 일본군의 화력 역시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러시아군 자신들도 전열을 강화하여 일본군에 대비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도착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아 상부 리네비치 장군의 퇴각 명령에 따라 평양에서 퇴각하고 말았다.

다만 미셴꼬 대장은 자기 휘하의 장교들을 소집하여, 한국에서의 정찰활동 행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군에게 러시아군 전력의 위용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전투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26)</sup> 그는 일본 기병대 역시도 러시아군을 꺼려하는 것 같으므로 러시아 부대의 힘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미셴꼬가 정주에서 전투를 치루러 떠나자고 하자 많은 까자크들이 호응하여 재차 원정군이 형성되었다.

일본군 정찰부대는 3월 11일(3. 24)경에 정주에 도착하였다. 까자크 부대는 도시 외곽에 숨어 있는 일본군을 끌어내고자 3일간 노력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3월 14일(3. 27) 미셴꼬 사령부는 60명 내지 70명의 일본군 기병이 정주에 머물다가 식량과 말먹이를 보급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이들을 괴멸시키고자 하였다. 미셴꼬 대장은 3월 15일(3. 28) 10시 30분경 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선두에 서서 직접 일본군이 머물고 있는 도시로 진격해 가기로 하였다. 며칠째 꿈쩍도 하지 않던 일본군과 1시간 반 동안 전개된 정주 시가전투는 전술적 선택에 의해 치루어진 것이었다.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군으로는 처음으로 전투를 벌이면서도 당혹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7)</sup>

25) Там же, с. 194-195.

26) В. А. Апушкин,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М., 1910), с. 28-29; Пак Чен-Хе, там же, с. 196.

이 전투는 러시아의 미셸코 부대(제1 치타 까자크와 제1 아르훈 까자크 연대)와 일본군 제12사단 예하의 근위기병대 분대와 보병중대 간에 실시되었다.<sup>28)</sup> 전투 결과 러시아군은 1명의 장교와 4명의 까자크 병사가 전사했고 3명의 장교와 12명의 까자크가 부상을 당하는 손실을 당했다. 일본측은 5명(1명의 장교와 4명의 사병)이 전사했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양국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군은 120명이 부상을 당하여 이들을 후송하느라 500명의 일군을 고용되었다는 주민 목격자의 주장도 있듯이 상당한 규모를 지닌 전투가 전개되었음을 짐작케 한다.<sup>29)</sup>

정주전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러일전쟁이 끝난 1908년, 영국 국방부 총참모본부는 정주전투에 관해서 “일본군 근위기병대의 상당수 인원이 대체로 6개의 까자크 부대와 정주(Чен чжю, Тиеццу) 남쪽 지역에서 충돌하였다”라고만 적고 있다. 다만 이 시점은 일본군이 압록강 방면으로 북진해 가는 과정에서 군수물자를 원활히 보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적고 있다. 오히려 총참모본부는 당시 시점에서 일본군이 압록강 방면으로 북진하면서 군수물자를 원활히 보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30)</sup> 그러한 과정에서 3월 15일의 정주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결국 정주전투의 의미는 보급체계가 아직 갖춰지기 이전의 일본군을 공격함으로써 이들의 북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초기 전투의 승패에 따라 전체 러일전쟁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곧 3월 18일 청천강 어구 진남포를 통하여 식료품 및 기타 군수

27)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летопись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по официальным данным, сведениям печати и показаниям очевидцев), вып. IV. (С-Петербург: Новый журнал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04), с. 126.

28) Там же.

29) Пак Чен Хе, там же, с. 196.

30) Английский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영국총참모본부),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вып. I-й, Борн Винекен(перевод)(С-Петербург: Комиссионер военно-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1908), с. 83. 일본군은 육군과 해군이 정찰활동을 벌여 청천강의 제일 좋은 해빙지점을 찾아서 물자수송을 마쳤다. 이때 5군대의 거점을 해상과 육상에 각각 건설하였다.

물자를 공급받아 안주까지 수송한 후 근위부대에 공급하고 나서야 북진을 독려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군 선견기병지대의 한반도로의 정찰행군 기간은 총 49일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에 러시아군은 광범위하게 정찰활동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압록강 하구에서 백동(Пектон)과, 안주를 지나 평양과 영변 그리고 청천강 하구까지 그리고 삭주에서 박천까지 정찰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일본군의 한반도 정찰부대의 위치, 초소 그리고 보초병 등의 배치현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군의 주력군이 제물포, 해주 그리고 진남포에 위치해 있으며, 평양과 안주로 이동하고 있는 작전경로까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정찰행군은 많은 아쉬움을 주는 작전이었다. 평양에 진출한 일본군은 단지 1개 중대만이 입성한 상태였으므로,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군을 저지할 의향이 있었다면 평양에서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더 이상의 남하를 꺼려하여 회군을 결정하였으며, 3월 15일에 전개된 정주에서의 육상전투에서조차 일본군의 북진을 저지할 만큼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미셴꼬 선견기병지대는 정주에서 벌인 전투에서 적극적으로 일본군을 격퇴시킬 의지가 없었다. 일본군이 제1군을 집결시켜 총력을 다해 대비한 반면, 러시아는 압록강 물이 녹아 주력부대와 분리, 고립되는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전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퇴각하면서 싸우던 러시아군은 일본군과의 최종 성패를 뒤로한 채 3월 21일(4. 3) 벌써 압록강을 넘어 후퇴해 버렸다.

## (2) 러일전쟁 최초의 지상전 - 압록강전투

러시아군이 후퇴해 버리자 일본군의 북진은 압록강까지 수월하게 전개되

었다. 게다가 일본군은 진남포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아 행군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다. 마침내 러시아군과 일본군은 4월 7일(4. 20)에 이르러 압록강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하면서 건너편 지역에 집결하게 되었다. 일본은 두만강 일대를 공격(форсирование)하기 위해 그리고 러시아는 만주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집결한 것이다.

일본군 제1군 산하 제12사단은 이누에를 사령관으로 하여 4개의 보병연대, 1개의 포병대로 구성되어 압록강 최전선에 배치되었다. 근위사단은 의주에 머물면서 강어귀에서 정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일본군 병력은 주로 산악지형에 은둔하고 있었는데 전체 병력수가 약 4만 4천명이었다.<sup>31)</sup>

반면에 자수리치를 사령관으로 하는 러시아 동부지대(Восточный отряд)는 제3동부시베리아 보병사단(3 Восточно-сиб. стр. дивидия) 소속 4개 대대와 제6동부시베리아 보병사단 소속 2개 대대가 주축이었다. 여기에 4개의 기병연대와 24문의 대포가 포함되어 있어 기동성과 화력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동부지대의 전체 병력은 16,000명 내지 16,200명 정도로서 자연지형상 매우 근접하기 어려운 압록강과 북안 지역에서 애하(Эй ха, 霽河)강까지 배치되었다. 동부지대 본대는 대체로 후방지역에 배치되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후방지역인 요양-봉천 방면을 엄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4월 13일(4. 26)경 압록강 근처에 배치된 러시아군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익지역인 안동(Саходзы, 安東) 지구에는 제3동부시베리아 보병사단 까쉬말린스키 예하의 부대(2,580명의 소총병과 400명의 까자크병 그리고 8문의 대포와 8개의 기관총을 보유)가 배치되었고, 중익 지역인 구련성(九連城) 일대에는 뚜루소프(Трусков) 장군의 제6동부시베리아 보병사단 예하 제

31) 3월 20~27일 사이 일본군 제1군의 전진부대는 보병 2,000명, 기병 500명 그리고 대포 12문을 보유한 채 의주에 머물면서 강변을 정찰하고 도강을 위한 물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М. Шилов, Там же, с. 6-7.

11, 12, 22연대 등이 총 5,200명의 소총병과 24명의 까자크 병사 그리고 16문의 대포를 보유한 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쟌즈이(Тензы) 평야에는 제9, 11 보병연대가 예비대로 구성되어 5,200~5,400명의 병사가 16문의 대포를 갖고 총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sup>32)</sup>

러시아의 진지 중에서 일본이 가장 관심을 쏟은 지역은 압록강의 구련성 방면이었다. 이 곳은 투르소프(Турсов) 장군이 지휘하는 제6사단이 6천명의 보병과 1천명의 기병 그리고 12문의 대포를 보유한 채 버티고 있었다. 4월 7일이 되자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도강작전을 위하여 필요한 수상가교를 밤낮으로 설치하였다. 그 와중인 13일과 14일에 일본군 약 1,500명이 의주시 앞 검동도(Кинтей), 막사도(Сомалинду) 섬을 점령해 들어갔다. 이 곳을 지키고 있던 제22동부시베리아 보병연대는 15차례의 강력한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장교 시묘노프를 잃고 1/5의 병력과 모든 군마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채 퇴각해야 했다.<sup>33)</sup>

사기가 오른 일본군은 4월 15일(4. 28)에 이르러 10여 개의 가교를 건설하여 에이혜 강안 동쪽으로의 도강을 계속 시도하였다. 러시아는 소총공격을 하면서 일본군의 도강을 저지한 경험으로 판단하여 곧 일본군의 중앙과 좌익 방면(левый фланг)으로 대규모 공격(гл. удар)을 전개해 올 것으로 상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200km 멀리 요양에 위치해 있는 상부는 “좌익 방면에서 거둔 성공(일시적인 일본군 격퇴: 필자)에 너무 도취되지 마라. 이는 적군의 시위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의 목적은 귀 부대의 우익을 공격하여 바다와 격리시키려는 데에 있다”<sup>34)</sup>며 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32) 러시아군 병력은 암비헤(Амбиз)와 샤오누시헤(Сяонусихэ)지구와 고우방고우-꾸산(Коуван гоу-Дагушан) 지구에도 존재하였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동부지대의 병력이 16,000명의 보병과 2,500명의 정규군 그리고 650명의 까자크 기병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영국은 계산하였다. Английский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영국총참모본부),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там же, с. 9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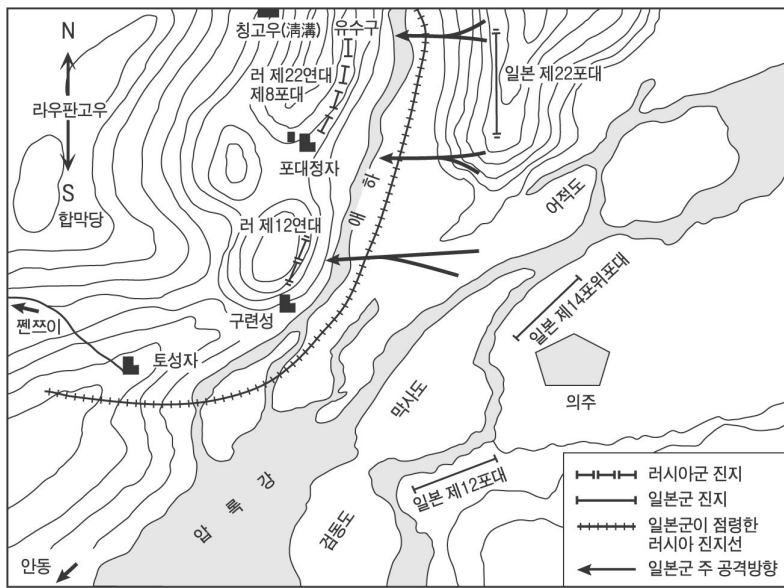
33)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летопись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по официальным данным, сведениям печати и показаниям очевидцев), вып. IV, там же, с. 143.

34) “не увеличай тесь своими успехами на лев. фланге, это только демонстрация противник

러한 지시는 제6동부시베리아 보병사단이 방어 전투에서 패배하기 하루 전까지 계속 내려졌다.

일본군 제1군 사령관 구로키는 사단장들과 참모장교들을 소집하여 “러시아 자수리치 동부지대에 대한 총공격을 4월 18일 아침에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일본군은 총공격에 대비하여 조금씩 전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4월 16일(4. 29) 제12사단장 이누에는 아영지에서 나와 압록강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송구천(Сункучен)강을 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곳의 압록강 대안에는 러시아 구셰프(Гусев) 중

압록강전투 - 4월 17~18일간 전개된 전선배치도



출처: 『그림을 곁들인 러일전쟁편년사』(상·베제르부르크, 1904).

а Его цель - ваш прав. фланг, который он хочет отрезать от моря." М. Шилов, там же, с. 9. 이러한 내용의 상부 지시는 푸르소프 장군의 제6사단이 패배한 이후에도 계속 내려졌다. 즉 상부의 지시는 오관으로 판명된 것이다.

령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저녁 무렵 일본군 제12사단의 선두부대와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4월 16일 아침 일본군이 전혀 응사하지 않자 구쵸프 부대는 좌측 방면에서의 방어임무를 어느 정도 완수했다고 판단하였는지 전투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진지에서 벗어나 북쪽으로 떠나 버렸다.<sup>35)</sup>

검동도(Кинтей) 섬에 위치한 일본군 역시 야전포 16문이 포문을 열기 시작하여 구련성 인근 인구밀집 거주지역을 포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상정한 주공격 지역인 구련성에 대한 집중적인 포격은 이것이 바로 러일간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30분 후에 구련성-유수구(Юшугу, 楡樹溝) 전선에 위치해 있던 러시아의 대포 24문이 대응공격을 시작하였다. 양측의 포격전은 그 다음날 17일(4. 30) 아침 8시까지 전개되었으나 러시아측 대포 24문이 적의 정확한 포격에 의해 거의 부서졌다.<sup>36)</sup>

4월 16일의 포격전은 일본측 포병대의 화력이 월등해서 주간전투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리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러시아군의 지대장에게 전파된 이러한 사실은 곧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아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지대장 쨌블리츠키(Цибульский)나 그로모프(Громов-제22연대장) 등은 동부지대 본대의 지원이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적의 공격에 고립적으로 대비해야 했다.

4월 18일(5. 1), 일본군 제1군 사령관이 총공격하기로 정한 날이 되자 일본군은 새벽이 오기 전부터 전열을 다시 정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군 동부지대는 원위치에서 이동하지 않고 안동과 구련성 등 전장 약 6~7km로 널리 퍼져 방어하였다. 새벽 6시 일본군 3개 포병연대가 러시아군 제12, 22연대를 향해 맹렬한 포화를 쏘아대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2개 포병대대는

35)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летопись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по официальным данным, сведениям печати и показаниям очевидцев), вып. IV. (С-Петербург: Новый журнал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04), с. 144.

36) М. Шилов, там же, с. 10.

압록강 전투



일본군이 구린성(의주 대안)에 위치한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고 있다.  
(A. 지밤베스 그림, 출처: 『그림을 곁들인 러일전쟁편년사』(상·뻬제르부르크, 1904).

일본군 도강을 저지하고자 응사하였다. 사격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일본군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거나 부상당하여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일본군은 유일하게 존재해 있던 다리를 통해 도강하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강을 건너려 했으나 급물살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일본군은 처음에는 자국 포대의 지원사격으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듯 싶었으나, 시베리아 까자크 보병대가 산악에 파놓은 웅덩이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일본군 선두부대 내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일부는 퇴각하기 시작했으나 거의 총탄에 맞아 죽었다. 일본군은 강 중간에 가슴까지 물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도, 뒤

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러시아 제12사단이 쏘는 포화를 피하고만 있었다.<sup>37)</sup>

일본군은 근위포병사단의 화력지원을 받아서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배치상태를 훤히 알고 있는 듯 정확하게 공격해 왔다. 마침내 7시 30분경 일본군은 도강은 물론이고 러시아 제12연대 전진부대의 참호까지 점령했다. 9시경 동부지대장 지수리치 장군은 쟌즈이(Тензы)에서 물러나 구련성 지구로 떠났다. 그는 최전선의 제12연대 병사들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는 제6동부시베리아 보병사단 사령관 까쉬말린스키(Кашгаллинский)에게 명령을 내려 한투호즈이(Хантухозды)강 건너로 퇴각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제6사단 사령관은 반격을 시도하다가 군사력이 월등한 일본군의 공격에 패배를 안고 후퇴하게 되었다.<sup>38)</sup>

6시 30분경, 일본군 보병이 포병의 엄호하에 저항을 받지도 않은 채 도보로 에이혜강에 도착하였다. 그리고는 그 곳에서 유혈이 낭자한 전투를 2시간 동안 벌였다. 양측은 진지를 서로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였다. 일본군은 유별나게도 러시아군의 우익 방면을 계속 공격해 왔다. 8시경, 좌측 방면의 12연대가 후퇴하면서 우측방면이 완전히 적에 노출되자, 일본군은 이들의 남쪽과 서쪽의 퇴로를 각각 차단하여 압박하였다. 그러나 정확히 조준된 포격과 월등한 군사력 덕분에 일본군이 일단 승기를 잡게 되자 러시아군은 계속 밀리게 되었다. 러시아는 점차 라우판고우(Лауфангоу)나 북서방면 함탁당(Хаматаң, 蛤螳塘)으로 향하는 길만이 점령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14시 30분 일본군이 다시금 공격해 오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이 너무나

37) Там же, с. 12.

38) 그의 판단에 의하면, ① 일본군이 안동에 위치한 러시아군을 공격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러시아군은 큰 위협을 당하지 않았으며 어느 방향으로든 퇴각할 수 있다. ② 그들 뒤에는 동부지대 예비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제12연대 예비부대로부터 보다 더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일본군 군사력이 몇 배나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멈춘 사이를 이용하여 그들을 압박하지 않고 퇴각을 했어야 했다. М. Шилов, там же, с. 12.

수적으로 우세하기에 러시아 까쉬팔린스키 사령관은 하마판으로 후퇴하기로 결정내렸다. 우선 수송부대와 포병부대를 퇴각시켰다. 그러나 일본군 포격이 워낙 거세게 닥쳐와 일대 혼란이 일었다. 이때 7명 중 6명의 장교와 71명의 병사 그리고 76필의 말을 상실하였다.<sup>39)</sup>

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압록강 전투에서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 자수리치 휘하의 러시아 동부지대는 4월 17일과 18일(4. 30~5. 1) 전투에서 만도 대포 2문과 기관총 8대를 상실했으며, 73명의 장교와 2,324명의 병사를 잃었다. 포로로 잡힌 인원은 635명이었고 250필의 말을 포획당하였다.<sup>40)</sup> 이에 반해 일본측은, 비록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측의 1/3 수준의 손상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사상자는 889명에서 1,036명 정도로 추산되었다.<sup>41)</sup>

압록강전투에서 일본군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물리쳤다. 그 결과 일본은 만주와 대한제국의 국경 사이에 존재하던 러시아 진지를 거의 접수하여 만주 전선에서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주도권을 완전히 쥘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제2군과 제3군을 요동반도로 상륙시키는데 커다란 사기를 얻게 되었으며, 여순항을 넘어 만주 남부 내륙지역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반면에 러시아측은 압록강을 넘어 오는 일본 육군을 끌어들여 격파함으로써 일본 군사력을 분산시키려는 작전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향후 전선운동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39) Там же, с. 14-15.

40) 한편 일본측은 이날의 전투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손실을 당했다. 일본측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한 장교 30명과 1,870명의 사병이 전사했다는 수치는 상당히 축소된 것이었다. 러시아 전사에서는 러일전쟁의 전투 중 전투규모나 전투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봉천전투(21일), 샤희(Шахэ)전투(13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전투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М. Шиллов, Там же, с. 15-16.

41) 러시아측은 2,229명이 사망하고 526명 내지 613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으며 약 2,755명 내지 2,482명의 부상자를 냈다. 그리고 28문의 속사포와 8대의 기관총을 상실하였다. В. А. Яхонтов, "История японо-русской войны 37-38 гг. Мей дзи(1904-1905)", Япон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 Токио, Т. 1. (Хабаровск, 1914), с. 293.

만일 러시아군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라면 전투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4월 초순만 하더라도 일본군의 집결상태는 체계를 갖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 시점이 러시아가 일본군 전진분대를 괴멸시킬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일본군 본대가 도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5개 보병연대로 구성될 근위여단조차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42)</sup>

러시아 대대, 연대, 사단 사령부는 일본군의 조직 편성(ग्रुप्шировка)과 작전의도(намерения) 등에 대해 거의 파악한 것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 소규모 부대는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 200km나 멀리 떨어진 만주군 본대와 고립되어 적을 맞이해야 했다. 반면에 일본군 구로끼 부대는 러시아군의 규모, 예비부대와 거리, 예비부대의 규모 등을 훤히 파악하고 있었고 연대급 사령관의 명단까지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이미 정보전이나 전쟁준비에 있어서 일본은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 4. 나 오 떠

지금까지 러일전쟁 시기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활동이 한반도 지상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로 평가하여 전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한반도를 장악하려 하였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한반도를 만주 다음가는 부차적 의미를 갖는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한반도 전장에 대한 러일 양국의 정치적, 군사전략적 인식의 차이는 러일전쟁의 승패를 초기에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반도내 지상전투를 살펴본 결과 나름대로 다음의 몇 가지 중요사항을 정리해 볼 수 있다.

42) М. Шилов, там же, с. 8.

첫째 일본의 사전 전쟁준비는 치밀했던 반면,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일본이 러일협상에 대한 미련을 버림과 동시에 군병력을 한반도로 진주시키고 인천항과 여순항에서 기습전을 벌인 것도 사전에 기획된 것이었다.

둘째로, 러시아의 군사전략은 여순항과 만주 방어에 집중하고 ‘제2전장’인 한반도에 대해서는 단지 일본군 주력이 여순항 공격을 분산시키는 선에 의미를 둔 소극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초기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군에 대한 대응이 정찰 수준 2 이상의 것도 아니었다. 이는 곧 ‘제2의 전장’인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간과한 결과였다. 결국 그 피해는 한반도를 일본에 내줌으로써 항상 전략적 수세에 놓이게 되었다.

셋째로, 러일전쟁 최초의 육상전투인 정주전투와 압록강전투는, 비록 만주전장에서 벗어난 전투라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러일전쟁 개전 초기 한반도에서 전개된 지상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주와 압록강전투는 전개양상의 치열한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초기 전투의 중요성을 소극적 차원에서 보았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전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면 러일전쟁의 전체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지상에서 전개된 전투의 전쟁사적 의미는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명받을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적극적인 대한반도 군사전략을 추진했었다면 초기 한반도에서의 전투로 대세가 결정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러시아로서는 만주전장으로 상륙할 일본군을 막는데에만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사실상 외면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결과 러일전쟁은 내내 일본의 전략에 이끌려 갔다고 평가된다.

## 참 고 문 헌

- 강성학, 『시베리아 철도와 사무라이: 러일전쟁의 외교와 군사전략』(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 김용구·하영선 편, 『한국의교사연구』(서울: 나남출판, 1996).
- 김원수, 「용암포사건과 일본의 대응」, 역사학회 편, 『로일전쟁 전후 일본의 한국침략』(서울: 일조각, 1986).
- 이우진, 「러일전쟁과 한국문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의교사 I』(서울: 집문당, 1993).
- 말로제모프 A.(석화정 역),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서울: 지식산업사, 2002).
-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 문서요약집』(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 신승권, 「로일전쟁 전후의 러시아와 한국(1898-1905)」, 『한로관계 100년사』(서울: 한국사연구협의회, 1996).
- 심현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심현용 편역, 『한·러 군사관계사료집 I. 러일전쟁과 한반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이쿠타 마코토(生田 柁)(김행복 역), 『일본육군사』(서울: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4).
- 정창렬, 「로일전쟁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 『로일전쟁 전후 일본의 한국침략』(서울: 일조각, 1986).
- 조명철, 「러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2003년 역사학회심포지움 발표문.
- 잭 런던(윤미기 역), 『잭 런던의 조선사람 엿보기』(서울: 한울, 1995).
- 최문형, 『제국주의 시대 열강과 한국』(서울: 민음사, 1990).
- Английский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в 1904-1905 гг. Т. I*, Борн Вилеке(перев.). С-Петербург: Комиссионер военно-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1908.
- Апушкин, В. А.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на 1904-1905 гг.* М., 1910.

- Ванин, Ю. В. (ред.), *История Коре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Т. 1. М., 1974.
- Василевский, В. И. *Забайкальское казачье войско*. М.: Русское слово, 2000.
- “Действия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на 1904-1905 гг.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М., 1941.
- Золотарев, В. А., Саксонов, О. В., Тюшкевич, С. А. *Военн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и*. М.: Кучково поле, 2001.
-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летопись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М.: Рейттар, 2001.
-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летопись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по официальным данным сведениям печати и показаниям очевидцев)*, вып. IV. С-Петербург: Новый журнал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04.
- Левицкий Н. А.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на 1904-1905 гг.* 3-е издание.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ркомата обороны СССР, 1938.
- Левицкий, Н. А., Быков П. Д. и Переслегин С.,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на 1904-1905 гг.* М.: ИЗОНРАФУС, 2003.
- Пак, Б. 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1979.
- Пак Чен Хе,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на 1904-1905 гг. и Корея*.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7.
- Романов, Б. А. “Концессия на Ялу. К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личной политики Николая II”, *Русское прошлое. Исторические сборники* под ред С. Ф. Тлатонова, А.Е. Преснякова и Ю. Гессена). Петроград-Москва, 1923.
- Романов, Б. А. *Очерк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на 1895-1907*. М., Л.: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1947.
-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на 1904-1905 гг.”, *Работа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по описанию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в 9-й томах)*, Спб., 1910.
- Шилов, М. “Бой на р. Ялу”, *Военный вестник*, No. 5, Воениздат, М., 1939.
- Яхонтов, В. А. “История японо-русской войны на 37-38 гг. Мейдзи(1904-1905)”, *Япон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в Токио*, Т. 1. Хабаровск. 1914,

РГВИА(러시아 국립 군역사문서보관소)

РГВИА Ф. ВУА. Оп. 1. Д. 133(1903).

РГВИА Ф. ВУА. Оп. 16. Д. 9194(1904).

РГВИА Ф. ВУА-487. Оп. 1. Д. 140.

РГВИА Ф. ВУА-846. Оп. 16. Д. 29007.

РГВИА Ф. ВУА-846. Оп. 16. Д. 27186.

РГВИА Ф. ВУА-846. Оп. н.д. Д. 32088.

РГВИА. Ф. ВУА. Оп. н.д. Д. 27184. Д. 1-94(1905).

РГВИА Ф. 2000. Оп. n. d., Д. 1751.

(원고투고일 : 2004. 3. 10, 심사완료일 : 2004. 4. 1)

주제어 : 러일전쟁, 인천해전, 정주전투, 압록강전투, 동부지대, 지상전

КСИ

<ABSTRACT>

Ground Battles in Korean Peninsular as  
'the Second Field' in the Russo-Japanese War -  
Focusing on the Jungjoo and Yalu River Battles

Sim, Heon-Yong

The Russo-Japanese war(1904-1905) occurred shortly after the negoti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came to end in vain. We has disregarded this war for the reason that the power-expanding struggle between imperialistic nations, led to the loss of sovereignty of our nation and left a tragic history of Japan's colony.

But I found that the roar of firing by the sudden attack of Japan had started not at Ruisoon harbor(旅順港 奇襲), but at Incheon harbor(仁川海戰, Jaemulpo) and Korean peninsular had become 'the second field of war', left devastated. Therefore, we should regard the meaning of battles on the sea and land of Korean peninsular.

I will assert that the Russo-Japanese war cannot be overlooked because it is directly involved in our fate and interest and that we didn't look on the situation. For this purpose, I will reveal the truth of the battle on the sea-Incheon battle as the opening of the Russo-Japanese War, the battles on the land-the Jungjoo battle(定州戰鬪), the Yalu River battle(鴨綠江戰鬪).

Specially Ground battle in Korea(the second field of war) like as battles in Jungjoo and Yalu River have a significant meaning as early one in the Russo-Japanese war in the sense that military and strategic attitudes of Russia and Japan on those battles reflected the whole aspect of the war.

Japan closely prepared the battles in advance, and actively congregated the military forces to the Korean peninsular through Seoul-Pyongyang-Yalu R., while Russia was left in a defenseless state. The strategic purpose of Russia in Korea was aimed at decentralization of the main forces of Japan.

That is why, ground battles in Korean peninsular in the early of Russo-Japanese war resulted in Russia's loss of the initiative of whole war to Japan in spite of severe offensive and defensive battle.

Key Words : Russo-Japanese War, Incheon Marine Battle, Jungjoo Battle, Yalu River Battle, East Detachment, Ground battle

K C I